

이슈

2

2019년 4월 11일 목요일

스포츠동아 제3061호

내가 왜 떴게?

2초면 어쩔 뻔



지민

●방탄 지민, 1초 턴 : 방탄소년단 지민은 돌아서기만 해도 화제가 된다. 그것도 월드급 이슈다. 방탄소년단은 8일 새 앨범 타이틀곡인 ‘작은 것들을 위한 시’의 티저 영상을 공개했는데 이 영상의 마지막 장면은 일제히 뒤돌아 서 있는 멤버들의 실루엣이다. 그런데 멤버 중 지민의 턴이 “과연 어느 쪽을 향하고 있는가?”가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무슨 이슈거리인가 싶을지도 모르지만, 방탄소년단 지민이니까 가능한 얘기다. 여하튼 이 이슈는 해외 매체에서 집중적으로 다룰 정도로 뜨거운 관심을 모으고 있다. 1초가 이 정도니, 2초 동안 들었으면 어쩔 뻔했니.

마흔이라고? 오타겠지



이요원

●이요원, 끝판왕인 : 이요원이 “Thank U”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다. 사진 속에서 이요원은 자신의 얼굴이 그려진 케이크를 자르고 있다. 도저히 세 아이의 엄마라고는 믿겨지지 않는 얼굴이다. 게다가 이 케이크는 그의 마흔 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케이크였단다. 마흔이라니! 서른이라 해도 화가 버럭 날 판이고만.

사람이 벚꽃보다 아름다워



이하늬

연예인들의 인스타그램도 하얀 벚꽃 물결이 일렁인다.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이 사진의 주인공은 이하늬다. 콧잔란 선 글라스와 핑크빛이 감도는 트렌치 코트도 벚꽃과 더없이 잘 어울린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다더니, 정말이었네.

편집 | 안도영 기자 do02@donga.com

‘꿈의 무대’ 마스터스, 오늘 오거스타서 개막 | 키워드로 살펴본 ‘스타워즈’

황제의 귀환 vs 후계자의 커리어 그랜드슬램

〈우즈 5번째 마스터스 우승 도전〉

〈매길로이 4대 메이저대회 석권〉

다시 마스터스의 시간이다. ‘명인 열전’ 마스터스가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파72·7475야드)에서 83번째 막을 올린다. 총상금 1250만 달러(약 142억 원) 규모로 펼쳐지는 마스터스는 이름만으로도 전세계 프로골퍼들과 골프팬들을 설레게 하는 대회다. ‘꿈의 무대’로 불리는 마스터스 개막을 맞아 주요 키워드로 이번 대회를 미리 살펴봤다.

우즈·매길로이·리드·로즈·스피스 등 세계 톱 랭커 치열한 그린재킷 정찰전
김시우, 한국 선수 대표해 우승 출사표
악명높은 ‘아멘 코너’…신의 선택 주목

●황제와 후계자

지난해 마스터스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44·미국)의 복귀로 큰 관심을 끌었다. 수년간 이어진 부상과 부진을 이겨내고 필드로 돌아온 우즈는 지난해 3년만의 마스터스 복귀전을 치렀다. 비록 최종 성적은 공동 36위에 그쳤지만, 황제의 컴백만으로도 압도적인 1000만원을 훌쩍 넘는 정도로 그 영향력은 대단했다. 우즈는 올해 대회에서 통산 5번째 우승을 노린다.

1년이 흐른 이번 마스터스는 차세대 황제의 우승 여부로 또 다른 주목을 받고 있다. 우즈의 후계자로 통하는 로리 매길로이(30·북아일랜드)가 주인공이다. 지난달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하며 기세를 올린 매길로이는 이번 대회 우승을 거두면 커리어 그랜드슬램(4대 메이저대회 석권)을 달성하게 된다. 신구(新舊) 황제들의 플레이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다.

●그린재킷

마스터스의 상징은 ‘그린재킷’이다. 우



그린재킷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 올해로 83번째 생일을 맞는 마스터스가 11일(한국시간) 미국 조지아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막을 올린다. 명인 열전을 앞두고 연습을 소화하고 있는 ‘골프 황제’ 타이거 우즈. 오거스타(미 조지아주) | AP뉴시스

승자가 초록색 옷을 걸치는 장면은 곧 화려한 대미를 뜻한다. 2005년 대회에서 필 미켈슨(49·미국)이 전년도 우승자 자격으로 자신의 라이벌인 우즈에게 그린재킷을 입혀주는 순간은 지금까지 골프계의 역사적인 장면으로 남아있다.

올해 역시 그린재킷을 정찰하기 위한 전쟁이 치열할 전망이다. 우즈와 매길로이는 물론 지난해 우승자 패트릭 리드(29·미국), 남자골프 세계랭킹 1위 저스틴 로즈(39·잉글랜드), 조던 스피스(26·미국), 저스틴 토마스(26·미국) 등 이름만 들어도

류현진 10일짜리 부상자명단의 의미

9번째 IL불구 장기부상은 피한듯
1선발 복귀, 팀도 류현진도 간절

결국 부상자 명단(IL·Injured List)에 올랐다. 어떻게든 IL에 오르는 걸 피하고 싶었던 류현진(32·LA 다저스)의 목표는 세 번째 등판 만에 깨졌다. 하지만 장기 부상 가능성이 높지 않다. 개인과 팀 모두를 위해서 열흘 뒤 복귀가 절실하다.

류현진은 9일(한국시간)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와 원정경기에서 1.2이닝 2실점을 기록한 채 자진 강판했다. 구단은 강판



류현진

직후 원 사타구니 염좌 진단을 내렸고, 이튿날인 10일 그를 10일짜리 IL에 올렸다. 류현진 개인의 메이저리그 아홉 번째 IL 등제다. 2년차였던 2014년 4월 한 달 결장을 시작으로 IL 등제는 연례 행사가 됐다. 현지 언론에서도 류현진을 ‘인저리 프론’으로 분류했기 때문에 스스로도 “어떻게든 부상 없이 풀타임을 소화

류현진 ML 부상자 명단(IL) 등재일지		
일시(한국시간)	부상 부위	비고
2014년 5월 3일	왼 어깨 염증	15일 IL
2014년 8월 16일	오른 엉덩이 염좌	15일 IL
2015년 4월 6일	왼 어깨 관절와순 수술	시즌아웃
2016년 4월 4일	왼 어깨 통증	15일 IL 후 60일 IL
2016년 7월 20일	왼 팔꿈치 염증	15일 IL 후 60일 IL
2017년 5월 2일	왼 엉덩이 타박상	10일 IL
2017년 7월 5일	왼 발 타박상	10일 IL
2018년 5월 4일	왼 사타구니 근육손상	10일 IL 후 60일 IL
2019년 4월 10일	왼 사타구니 염좌	10일 IL

하는 게 목표”라고 밝혀왔다. 하지만 세 번째 경기 만에, 그것도 지난해 전력이 있던 부위를 다치며 먹구름이 끼었다.

불행 중 다행인 것은 장기 부상 가능성이 낮다는 점이다. 데이브 로버츠 다저스 감독은 ‘LA 타임스’를 통해 “류현진은 조만간 불펜 피칭으로 몸 상태를 점검할 예

정이다. 지난해만큼 심한 부상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류현진 스스로도 ‘오렌지 카운티레지스터’와 인터뷰에서 “아침에 일어나니 전날 마운드를 내려갈 때보다 느낌이 좋다”고 밝혔다.

인저리 프론이라는 꼬리표를 떼어내기 위해서는 물론이고 다저스 마운드 사정을 감안해서도 빠른 복귀가 필요하다. 다저스는 아직 ‘에이스’ 클레이튼 커쇼의 복귀 시점을 구체화하지 못했다. 여기에 ‘임시 1선발’ 류현진까지 빠졌다. 불펜 전환이 예정됐던 홀리우 유리아스가 한 차례 더 선발로 나서고, 14일 경기에 임시 선발을 기용할 계획이다. 류현진이 열흘 뒤 복귀한다면 ‘땀땀’은 한 번으로 족하다. 여러 모로 빠른 복귀가 간절한 류현진이다.

최희래 기자 ing17@donga.com

가상현실 공간에 모여 VR로 야구 응원·콘서트 즐감

5G가 콘텐츠 패러다임을 바꾼다

SK텔레콤, VR 야구중계·주간아이돌
KT, 270도 영상 야구 뮤지션 라이브
LG, 경기장 줌인·U+아이돌라이브

5G가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의 소비 패러다임까지 바꿀까.

이동통신기업들은 5G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 전용 콘텐츠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서비스 초기 소비자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콘텐츠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부문에 집중하고 있다.

우선 프로야구 중계 콘텐츠에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하나의 화면을 일방적으로 보여주는 것에서 벗어나 이용자가 보고 싶은 장면을 골라 볼 수 있다. 가상현실(VR) 기기로 실제 경기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을 수 있다.

SK텔레콤은 동영상 스트리밍 서비스(OTT) 옥수수에서 경기장 전체를 볼 수 있는 와이드 뷰 등의 기능이 있는 ‘5GX 프로야구’와 ‘VR 야구 생중계’ 서비스를 내놓았다. 일단 두 서비스 모두 인천 SK행복드림구장만 적용한다. SK텔레콤은 또 경기장에 가지 않고 가상현실 공간에 모여 함께 응원할 수 있는 ‘소셜 VR 생중계’도 제공하기로 했다.

KT도 수원KT위즈파크에 다양한 기술을

적용하고 ‘올레 tv 모바일’에 ‘프로야구 라이브’를 제공한다. 시청자들은 곳곳에 설치한 카메라로 포지션별 영상을 보고 최대 270도의 타임 슬라이스 영상도 즐길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지난 시즌에 누적이용자 2000만 명을 넘는 인기 서비스 ‘U+프로야구’에 ‘경기장 줌인’과 ‘홈런 영상’ 등의 새로운 기능을 접목했다.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활용에도 적극적이다. SK텔레콤은 옥수수의 ‘5GX관’에서 ‘아이돌 라디오’, ‘주간 아이돌’ 등의 VR 콘텐츠를 독점 제공한다.

KT는 올레 tv 모바일에서 멀티 앵글 등으로 실감나게 콘서트를 즐길 수 있는 ‘뮤지션 라이브’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 5G 기반 음악

콘텐츠를 강화하기 위해 서울 홍대 입구에 전용 콘텐츠 제작 공간도 마련했다. LG유플러스는 아이돌 밀착영상과 VR 영상을 제공하는 ‘U+아이돌라이브’를 서비스 중이다.

빠른 네트워크 속도를 기반으로 한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개발은 앞으로 더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동통신사를 포함한 정보기술(IT)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이들 분야와의 협력을 강화하기 때문이다.

최근 KT가 한국프로축구연맹과 5G를 기반으로 한 축구 콘텐츠를 공동 발굴기로 한 것과 SK텔레콤이 KBS와 5G 기반 생중계 시스템을 공동개발해 스포츠에 시범적용기로 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 SK텔레콤이 2017년 SM엔터테인먼트와 상호계회사 지분 투자를 하고, 현재 지상파 방송3사와 옥수수과 폭(POC)의 통합법인 설립을 추진하는 것 모두 엔터테인먼트 콘텐츠 확보를 위한 대표적 협업 사례다. 김명근 기자 dionys@donga.com